

아이원바이오,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해 사마리안퍼스에 5 억원 기부

전세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사마리안퍼스의 감염병 예방과 진단, 치료 활동에 기여

2021-05-12



크리스토퍼 워스 사마리안퍼스코리아 대표(왼쪽)가 12일 아이원바이오에서 기증하는 이동검진차량 앞에서 아이원바이오 김민배 대표와 함께 기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주식회사 아이원바이오가 지난 12일,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이동검진차량을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한 기증식에서는 아이원바이오 김민배 대표,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크리스 워크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이원바이오는 다양한 바이러스 및 질병진단 기술과 덴탈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온증폭 분자진단 시약을 최초로 선보인 주목받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이번에 아이원바이오에서 기증하는 이동검진차량은 길이 약 6m 가량의 크기로 내부에는 의료용 냉장고, 테이블, 의자, 생물안전작업대 및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RNA 자동추출기,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다양한 장비를 탑재했다. 코로나-19 진단 장비는 탑재된 장비 외에 다른 장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이번 아이원바이오의 기증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전세계 감염병 위기대응에 협력하는 매우 의미있는 나눔이다.”라고 전하며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의 1호 기업후원으로서 아이원바이오가 전세계 보건의료활동에 기독교 기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원바이오에서 기증하는 이동검진차량

이동검진차량은 다양한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아이원바이오에서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등을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아이원바이오 김민배 대표는 본인의 회사 주식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아이원바이오와 김민배 대표가 이번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총 금액은 약 5억 원 상당이다.

아이원바이오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진단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기업 발전과

함께 평소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아이원바이오 김민배 대표는 “기독교 실업인으로서 우리의 기술로 해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기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공한 뒤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한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아이원바이오를 ‘제 1호 굿 사마리안 코퍼레이션(Good Samaritan Corporation)’로 예우를 할 계획이다. 굿 사마리안 코퍼레이션은 굿 사마리안 소사이어티의 일환으로 고액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며 기부금액에 따라 현장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예우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사이며 본사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보건의료활동 및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초교파적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00개 비영리 단체 중 19위 규모의 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매년 전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영국, 호주 및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17개국에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국제재난 대응 및 보건의료활동과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 어린이 전도사역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관 홈페이지(www.samaritanspur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소개

사마리안퍼스는 기독교 구호 단체로,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 긴급구호활동, 의료선교 및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부이며 본부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국제 긴급 구호 활동, 의료 선교 및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과 해외 미전도 지역 어린이 사역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 관련 문의

기부사역팀(02-2105-1864 또는 rachel.ahn@samaritanspurse.or.kr)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